PU수지용 합성피혁 수요감소

신발 · 의류 경기악화 91년 4만톤에서 3만5000톤으로

올해 PU수지용 합성피혁은 관련산업의 침체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.
업계에 따르면, 올해 국내 합성피혁 수요는 91년 4만톤에 비해 15%가 감소, 연간 3만5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이같은 합성피혁 수요감소는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발 · 의류(garment)산업의 경기악화에 따른 것이다.

<표> 합성피혁 업체별 시장점유율(91년)

구 분	동성화학	건설화학	화인화학	송원산업	유니온고분자	환원정밀	기타
점 유 율	18%	17%	16%	14%	12%	7%	16%

(주) 건설화학 시장점유율은 강남화성 포함.

신발의 경우, 현재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, 정부가 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나,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시장과는 달리, 국내 인건비 상승 및 후발개도국의 추격 등으로 인해 국제 경쟁력을 상실,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. 의류산업도 경기가 악화,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이에 관계자들은 합성피혁 제품의 수출을 활성화, 내수감소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나, 동남아시아의 자체공급 및 국내제품의 품질저하, 폴리우레탄 특성(온도변화에 따른 반응)으로 인해 해외진출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다.
또한 합성피혁업체들이 영세, 기술 및 자금 압박으로 적절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.
합성피혁업계의 관계자들은 정부차원의 수출 경쟁력 확보, 기술개발에 의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PU수지용 합성피혁 수요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1992/2/15>